

일제시대 조선은행사택의 건축적 의미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Meaning of Chosun Bank's Official Residence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김 영 호*

Kim, Young Ho

박 용 환**

Park, Yong Hwan

Abstract

The Japanese style official residence were built by Chosun bank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architectural meanings of Chosun bank's official residence, its influences on Korean modern dwellings through trace of the original form and actual survey on the residence. We could understand influences of the rationality, also through the process of prototype's transformation and maintenance's change, we can know that the residence's modernizing process don't have the inflow one-sidedly but the process of the collision and the assimilation to the differences between the residential sense and one's culture.

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한국의 근대화는 강대국에 의한 강압적인 개항과 일본에 의한 타율적인 과정으로 한국주거건축의 근대화에 대한 연구에서도 일제시대에 건축된 주택의 선행연구가 필연적이다. 이것은, 현재 우리 주거가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현대주거의 존재원인이 되는 그 이전시대의 주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우리주거가 걸어온 길을 알아보고 전통주택에서 현대주택으로 변화하는 과정의 연결고리를 찾는 의미를 갖는다. 일제시대 한반도에 지어진 일식주택의 유형 중 관(官) 건축조직을 중심으로 지어졌던 일식의 관사와 사택은 민간에 지어졌던 일본 재래의 전통 주거형태가 아닌 화·양 절충식(和·洋折衷式)의 중복지형 평면형을 지닌 근대화된 주택으로서 이러한 관사와 사택은 당시 주거동향을 선도하는 진보적 성격을 띄었고 한국주거 근대화과정에

있어서 근대화된 주택의 선례가 된다. 특히, 이러한 관사와 사택의 여러 유형 중에서도 1920년 12월, 현 용산구 후암동 일대에 지어진 조선은행사택은 평면의 공간구성, 구조, 재료사용, 형태 면에서 다른 유형과는 구별되는 진보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조선은행사택의 원형이 지닌 진보적 특징과 건축적 의미를 찾아 일제시대 주거건축의 동향을 파악하고 둘째, 조선은행사택의 한국인 거주이후 원형은 어떠한 변화를 거쳐 현재에 이르는가를 통해 주거 근대화의 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조선은행사택에 대한 원형고찰과 현황의 파악 및 분석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1단계인 원형고찰에서는 '朝鮮と建築'¹⁾과 '경성지도'²⁾의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현재 잔존하는 사택의 실측과 거주자와의 면담을 통해 원형을 유추하고 그 특징을 외부공간과 배치, 평면 공간구성, 형태, 구조 및 재료 등의 항목별로 정리하여 당시 주거건축의 동향을 파악하였다.

2단계로 현황 파악과 분석 장에서는 현재 남아

* 한양대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과정

** 한양대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표 1. 조사개요

대상	조사항목	조사내용	조사기간
필지와 외부공간	· 항측사진 · 항측도면 · 토지대장	· 필지변화	99. 5. 3
		· 외부공간	99. 6. 30
주호의 내부공간	· 생활실태조사 · 거주자 면담 · 평면실측 · 사진촬영	· 가족구성	99. 5. 3
		· 생활공간 사용실태	-
		· 증개축	99. 5.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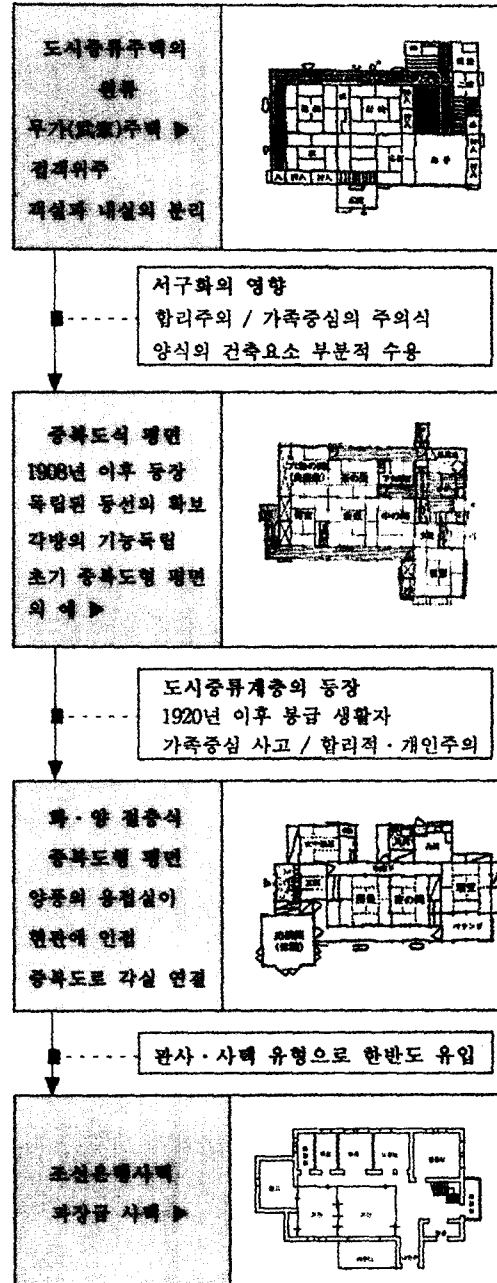
있는 조선은행사택의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원형의 외부공간과 주호 내부공간에서의 변화과정에서 변화와 지속의 요소를 찾아내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조선은행사택의 원형이 해방후 한인 거주와 사회 근대화와 함께 변화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주거 근대화의 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II. 일식 사택건축에 대한 고찰

일본 근대이후 도시주택의 유형은 상류층의 대저택과 중산층의 중류주택인 관사·사택, 서민층의 연립주택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단독주택의 주류가 되는 중류주택이 사회의 근대화와 함께 진행된 주택의 근대화 과정은 표-2와 같다.

일식 중북도형 평면은 도시중산층의 등장과 서구화 영향의 환경에 부합되어 대표적 중류주택으로 정착하였으며 중북도로 주택평면을 이분하면서 겹집화하고 실간(室間)의 이동시 다른 방을 거치지 않고 복도로 실간의 동선문제를 해결하였다. 중북도를 중심으로 남측에 주요 주거부분을 반대쪽에 부엌·욕실의 중속부분을 배치하여 컴팩트한 배치를 이루어 당시 도시인구급증에 따른 택지난의 사회적 상황에도 잘 부합될 수 있었다. 여기에, 서구화의 영향으로 양식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양식의 응접실이 있는 화·양 절충 중앙복도식 평면이 당시 일본내의 생활개선운동의 내용을 흡수한 근대화된 문화주택으로 유행하였고 한국으로의 유입은 1906년-1910년에 걸쳐 관 건축조직에 의한 관사주택의 유형으로 유입되기 시작한다.

표 2. 근대 일식 중류주택 변화와 한반도 유입³⁾



III. 조선은행사택의 원형 고찰

1. 조선은행사택의 건립배경

조선은행사택이 건립된 1920대는 3·1운동

표 3. 1920년대 한국과 일본의 건축계

한국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회사령 철폐 · 민간 산업활동 활기 · 민간 건축활동 활기 · 경성의 주택난 극심 · 사택건설이 장려됨 · 생활개량논의 전개 · 주택개량논의 전개 · 한인 건축가의 등장 · 주택 근대화의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중류계층 등장 · 서구화의 영향으로 합리적, 가족중심 사고 · 생활개량운동 · 주택개량운동 · 중부도시 평면 정착화, 양절층 중부도형 주택이 문화주택으로 유행

이후의 일본 정책의 변화로 인해 회사령이 철폐되어 민간산업과 건축활동이 활기를 띠었고 당시 경성의 주택난의 상황에 의해 관사와 사택의 건설이 관(官)의 주도로 장려되는 시기였다. 또한 한인 건축가들의 등장과 주택개량운동의 전개로 한국 주거건축의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가 된다.

2. 건물의 개요와 원형에 나타난 특징

(1) 건물개요

조선은행사택의 계획은 조선건축회의 정회원이며 조선은행 영선과장인 오노(小野二郎)와 노나카(野中技師)가 계획하였고 시공은 대창조에서 하였다.⁴⁾ 사택은 직급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단독형과 연립형으로 제공되었으며 표-3과 같다.

설계자인 오노는 “조선에 있어서의 주택건축의 개조”⁵⁾란 글을 통해 조선은행사택 계획시의 주안

표 4. 건물개요

동 호	1동의 평수				비고		
	건평	2층	지하	연건평			
부장 3	3	55.37	19.702	7.75	82.822		
과장 1	6	42.659	17.879	5.87	66.408	단독	
과장 2	3	43.698	17.938	5.90	67.536		
갑호 4	8	66.436	34.048	8.30	108.784		
을호 1	2	4	68.110	x단층	5.90	74.01	연립
을호 2	3	6	62.502	x단층	5.90	68.402	
병호 1	4	1	52.340	51.51	-	103.850	
합숙소 1	1	1	209.30	205.20	35.20	449.70	-
합계	23	35					

점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그는 조선의 풍토와 기후상황을 고려한 방한건축으로서 첫째, 외부에 면하는 벽면면적을 최소화한 컴팩트한 건물형태를 취하고 이를 위해 내부 공간의 구성을 중복도를 중심으로 겹집화하였고, 둘째 다다미 8조·6조 규모의 2실을 연속시켜 생활중심공간이 되는 거간⁶⁾의 남향배치와 유리로 내실화한 베란다를 전면에 부착하여 온실효과를 이루게 하였다. 셋째, 거간의 천장고를 8척 이하로 최대한 낮추고 창면적을 최소화한 단창 이종의 유리문 사용하였다. 넷째, 방한의 벽체 재료로 벽돌보다 우수한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고 천장 및 지붕 표면에 슬라브 블록의 보온재료와 아스팔트 방수재를 사용하였다. 다섯째, 난방방식은 소형의 저압 2관식 온수난방을 사용하여 온수가 실내를 순환하고 방열기에 의해 방열하며 외벽의 두께를 넓혀 누수에 대비하고 열손실을 줄였다.

(2) 원형의 필지와 배치⁷⁾

8개 블록에, 필지 중앙의 공원을 중심으로 삼판길 언덕의 구릉지에 방사형으로 배치되어 있고 합숙소 전면에 강이 있었다. 건립당시에는 담장 계획이 없었고 등급에 따른 배치는 중심부 공원에 부장급 사택 3호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분산되어 있고 연립형 사택은 동·서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다.

(3) 원형에 나타난 특징과 주거건축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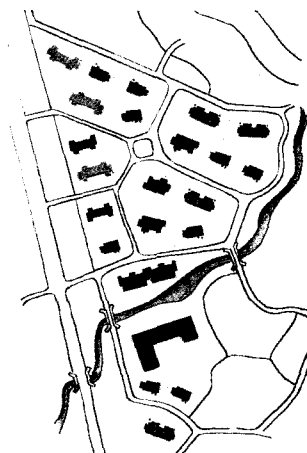


그림 1. 필지와 배치

① 중복도식 평면형과 현관의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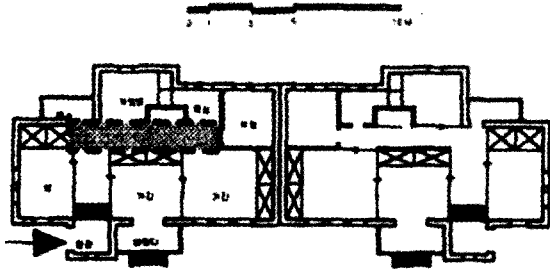


그림 2. 을-2호 사택

주거부분(거간/응접실) 과 종속부분(부엌/욕실/변소)으로 영역이 분리되고 겹집화로 컴팩트한 공간구성을 이루고 있다.

② 내실화로 공간의 사계절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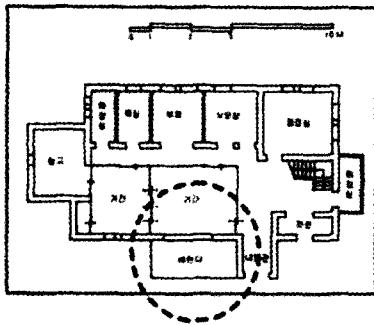


그림 3. 과장급 사택

거간의 전면에 유리로 내실화한 베란다를 부착하여 온실효과를 이루고 겨울철의 일광 실과 여름철엔 그늘을 생성하는 공간이 된다.

③ 가족중심의 공간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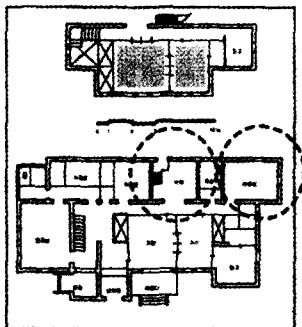


그림 4. 부장급 사택

가족생활공간인 거간 이 공간의 중심으로 남향에 있고 객간은 2층에 있다.

주부와 아동을 고려 하여 아동실의 확보와 주부동선을 고려 하여 부엌의 위치가 거간에 인접하여 위치해 있다.

④ 화·양 절충식 평면

설비공간의 집약 / 변소의 내실화

양식의 응접실이 현관에 인접하여 있고 물사용공간(부엌+욕실+변소)을 집중 배치하고 있다.

⑤ 입면형태/구조 및 재료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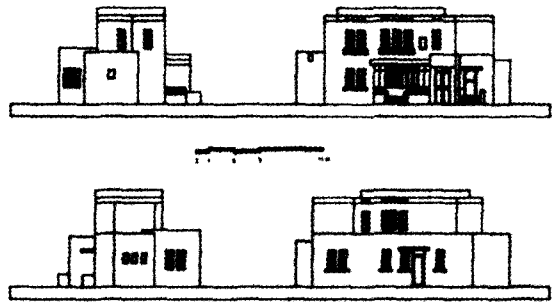


그림 5. 과장급 사택

콘크리트 슬라브 평지붕 위로옥상 정원이 있고 열손실 방지를 위해 창 면적은 최소화하였다. 목구조를 탈피한 콘크리트 보강블록구조이고 아스팔트 방수재료를 사용하였다.

이와 함께 조선은행사택의 원형에 나타난 불합리한 문제점으로는 온수난방에서의 난방재료비 과다, 콘크리트 블록 벽체와 평지붕 사용은 쉽게 가열되어 여름엔 불리한 점, 창면적 최소화로 거주자들이 느끼는 답답함, 실내변소에서 악취 문제 등을 들고 있다.⁸⁾ 이것은 주로 설계자인 오노가 사택의 계획시 방한건축으로 겨울의 설비에 치중한 결과로 인한 문제점들이 다소 보여진다. 그러나 오노는 그의 글에서 "조선은행사택이 근대화된 문화주택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으나 사택에서 시도한 개혁의 모두가 성공할 수 없더라도 문화생활에 접근하기 위한 고투의 흔적은 같은 시도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지침으로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⁹⁾고 밝히고 있다. 이상에서 보여지는 조선은행사택의 원형에 나타난 특징들은 당시 주거건축의 동향에 있어서 주택개량론과

한인건축가들의 등장에 따른 그들의 새로운 주택 제안에 근대화된 주택의 선례가 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¹⁰⁾ 이것은 당시 일제 강점기의 상황에서 서구화의 직접적인 접촉이 일본에 의해 차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주택의 제안과 생활개선에 있어서 근대화된 일식주택 안에 내재된 근대적 합리성과 주의식을 수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IV. 생활실태조사에 의한 현황

1. 필지와 외부공간

필지 원형의 8개 블록은 강의 북개로 7개 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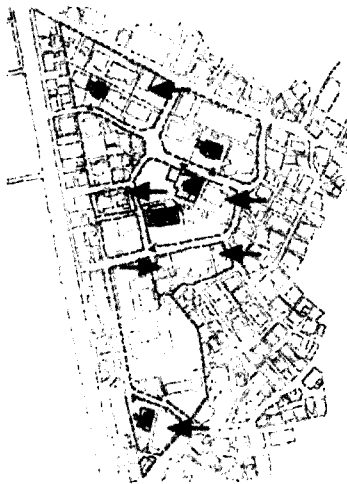


그림 6. 대문의 위치(→)

으로 나뉘어 현재 5개 사택이 남아 있다.

건립당시 구획되지 않았던 담장은 해방후 한인 거주이후 구획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담장의 구획으로 인한 블록내의 길의 형성은 생기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사택의 필지가 삼판길 언덕의 구릉지에 있어 길의 형성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담장 구획은 출입이 한 방향으로 고정으로 대문이 발생하였는데 1999년 현재 사택 필지내 주호에서의 대문의 위치는 사택이 북측도로에만 접한 경우를 제외하고 북측을 피해 위치해 있었다. 이것은 대문위치의 남향선호로 인한 결과로 보여진다.

2. 주호 내부공간의 변화

현재 남아있는 5개의 사택에 대한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원형의 변화과정을 유추하였다. 거주 기간이 오래된 사례 ①과 사례 ②의 경우 주거 변용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추출해 낼 수 있었다.

V. 생활실태조사에 의한 분석

1. 변화·지속의 요소와 원인 분석

(1) 주문화의 차이

- ① 개실화 : 거간에서의 개방성은 벽체 구획과 출입을 한 방향으로 고정하여 개실화하였다
- ② 내현관의 폐쇄 : 내현관은 일식주택에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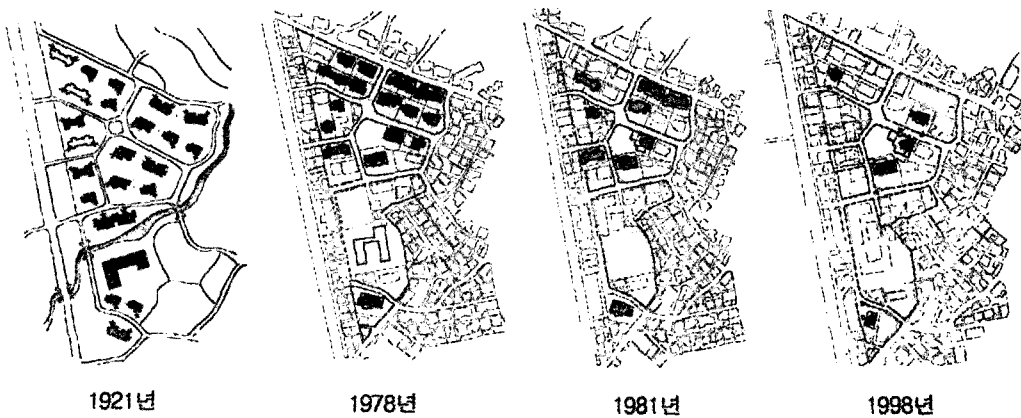


그림 7. 필지의 변화 -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244-100번지 일대

표 5. 사례 ①과 사례②의 주호 내부공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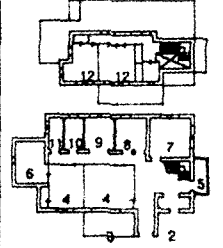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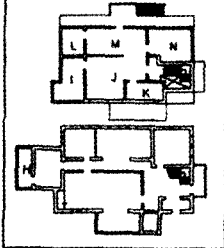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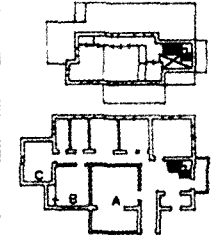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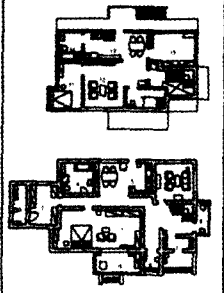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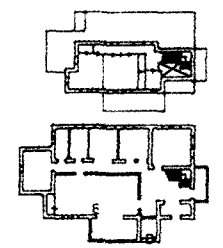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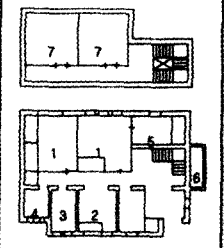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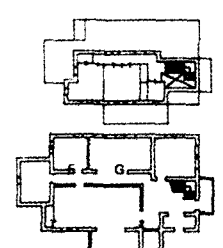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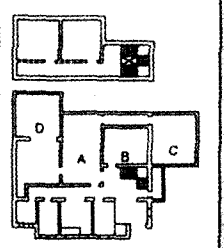
사례 ①		사례 ②	
 <p>(上) 2층 / (下) 1층</p>	<p>과장급 사택 원형</p> <p>1. 내현관 7. 용접실 2. 현관 8. 식모실 3. 배란다 9. 부엌 4. 거간 10. 욕실 5. 변소 11. 변소 6. 창고 12. 객간</p>		<p>원 다용도실 증축 (실내수납공간)</p> <p>2층 전체를 증축 분리하여 임대</p>
	<p>50년초 입주 입주당시 가족구성 4인 A 거간부분의 벽체구획 개실화 - 출입방향 고정 거간을 침실로 사용 - 배란다와 연결 사용 C 창고를 방으로 개조</p>		<p>1. 안방 9. 화장실 2. 가정방 10. 서재 3. 창고 11. 침실 4. 욕실 12. 거실 5. DK 13. DK 6. 용접실 14. 아이방 7. 현관 15. 서재 8. 창고 16. 욕실 9. 화장실</p>
	<p>D 내현관을 폐쇄하고 다용도실로 사용</p> <p>E 안방공간 면적 확장</p>	 <p>(上) 2층 / (下) 1층</p>	<p>같은 사택 원형</p> <p>1. 거간 7. 객간 2. 부엌 3. 하너실 4. 욕실 5. 창고 6. 변소</p>
	<p>G 부엌+하너실- 입식화 하너실 사라지고 DK 부엌+식당</p> <p>F 욕실+화장실</p>		<p>55년 입주 입주당시 가족구성 5인</p> <p>A 거간의 개실화 거간을 안방과 거실로 C를 증축 - 연결 복도 ABD를 전면으로 증축</p>

표 5. Continued

	<p>용접실을 2층으로 올리고 방으로 사용 EF 식모방+욕실 - 방 면적 확장 - 욕실 증축</p>																				
	<p>2층 증축하여 부분 임대 외부변소 증축 외부창고 증축 부엌+하녀실 → 식당 부엌은 식모방과 함께 식당 전면으로 증축</p>																				
	<table border="0"> <tr> <td>1. 현관</td> <td>11. 서재</td> </tr> <tr> <td>2. 식당</td> <td>12. 서재</td> </tr> <tr> <td>3. 부엌</td> <td>13. 가정부방</td> </tr> <tr> <td>4. 부엌방</td> <td>14. 용접실</td> </tr> <tr> <td>5. 서재</td> <td>15. 거실</td> </tr> <tr> <td>6. 욕실</td> <td>16. 방</td> </tr> <tr> <td>7. 화장실</td> <td>17. 욕실</td> </tr> <tr> <td>8. 창고</td> <td>18. 부엌</td> </tr> <tr> <td>9. 거실</td> <td></td> </tr> <tr> <td>10. 안방</td> <td></td> </tr> </table>	1. 현관	11. 서재	2. 식당	12. 서재	3. 부엌	13. 가정부방	4. 부엌방	14. 용접실	5. 서재	15. 거실	6. 욕실	16. 방	7. 화장실	17. 욕실	8. 창고	18. 부엌	9. 거실		10. 안방	
1. 현관	11. 서재																				
2. 식당	12. 서재																				
3. 부엌	13. 가정부방																				
4. 부엌방	14. 용접실																				
5. 서재	15. 거실																				
6. 욕실	16. 방																				
7. 화장실	17. 욕실																				
8. 창고	18. 부엌																				
9. 거실																					
10. 안방																					

접객위주의 요소로 한인 거주 후 폐쇄되어 다른 실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③ 외부변소의 증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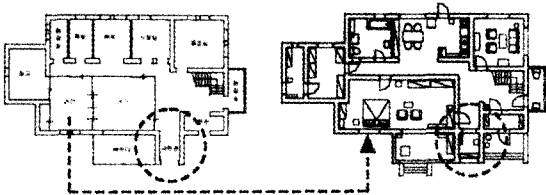


그림 8. 개실화와 내현관 폐쇄

주호의 내실화된 변소는 한인 거주 초기에는 설비의 미비로 변소를 본체에서 분리하려는 경향

이 보이고 설비 근대화 이후 욕실과 함께 내부에 정착하였다.

④ 외부공간 의식의 차이

관망, 감상의 공간인 정원의 일부에 한국인의 마당에서의 성격인 작업, 생활의 공간적 요소인 장독대, 빨래 건조대가 재생되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⑤ 수납방식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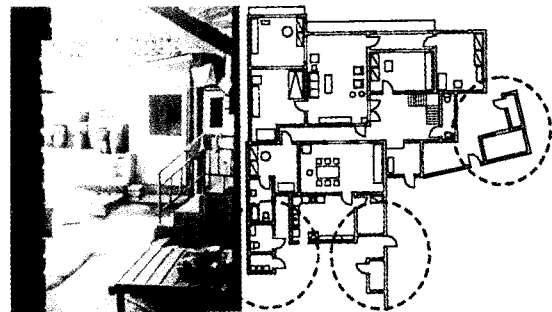


그림 9. 마당의 재생 / 외부에 창고와 변소 증축

외부에 창고가 증축되어 실내의 수납공간인 다락 이외에 외부의 별동 창고인 광에 수납하려는 경향이 보인다.

(2) 설비 및 재료의 발달에 따른 변화

① 부엌의 입식화와 식침분리

부엌이 입식화되면서 부엌과 식당이 함께 있는 DK로 식침 분리를 이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엌과 인접한 하녀실이 부엌에 통합되어 부엌의 면적이 확장되고 있었다.

② 변소와 욕실의 내부 정착

초기에 외부로 분리 경향을 보였던 변소는 욕실과 함께 통합되어 내부에 정착되고 있다.

③ 다양한 생활용품의 보급과 사용으로 인해 주택의 내부에 이것의 수납을 위한 공간이 요구되어졌다. 따라서 주택의 내부에 다용도실이 증축되거나 내현관과 같은 지속되지 않는 요소를 창고로 개조해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세탁기의 사용으로 인해 세탁기의 수납과 세탁물 건조에 필요한 공간이 요구되어졌으며 초기에는 욕실의 한 부분을 세탁실로 이용하던 것에서 점차 세탁실을 겸한 생활도구의 다목적 수납공간이 요구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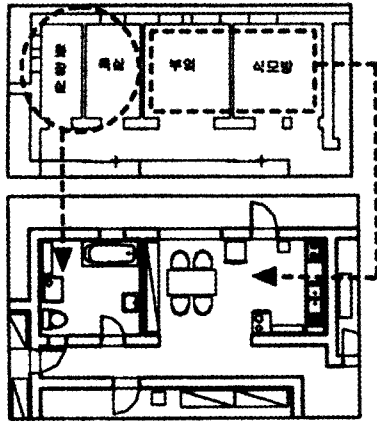


그림 10. DK와 욕실의 정착

주택의 내부에 증축되고 있다.

(3) 실 용도와 호칭의 변화

거간은 현재 안방과 거실로 주생활의 중심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것은 사택의 원형에서 주택의 중심에 가장 넓은 면적으로 남향을 갖는 거간은 우리 전통주거에서의 안방과 거실(마루)의 성격과 같기 때문에 호칭만 변경된 채 그 성격은 유지되고 있었다.

(4) 거주자 성장과 변화에 따른 공간 이용

거주인들의 입주초기에는 가족수의 증가와 자녀성장으로 인한 성별 분리취침으로 실의 증축과 실 용도의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후 가족 구성원들의 독립과 가족수 감소로 인하여 실의 용도를

표 6. 실 용도 · 호칭의 변화

원형	현재
居間	안방/거실
창고	다용도실/방
응접실	응접실
하녀실	부엌에 통합
부엌	부엌+식당
욕실	욕실+변소
변소	욕실+변소
내현관	다용도실
客間	방
아동실	방
현관	현관

바꾸고 일부를 증·개축하여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

(5) 지속의 요소

원형의 응접실은 접객의 요소를 분리하여 양식의 입식가구로 꾸며진 공간으로 현관에 인접하여 배치하고 접객의 객간은 주택의 중심부 남향이 아닌 2층으로 올려져 있고 대신 그 자리는 가족의 생활공간인 거간이 배치되어 있다. 이것은 접객위주의 공간구성이 아닌 접객의 요소를 따로 분리하고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구성으로 지속되었고 현관은 마당과 대청이 없는 주택에서 주호내·외부의 연결점으로 주택의 진입시 신발 벗는 곳과 신발을 정리하는 공간이 외기에 개방된 것이 아닌 주택 내부의 진입부에 내실화된 공간으로 있는 합리성으로 현관이 한인 거주 이후에도 그대로 받아들여져 지속되는 요소가 되고 있다.

VI. 결 론

1920년 행원의 편리를 위해 후암동의 삼판길 언덕에 건립된 조선은행사택은 그 원형에 나타난 특징으로 외부공간과 배치에서는 격자형의 일렬배치가 아닌 공원을 중심으로 방사형의 배치와 공지의 확보로 높은 주거환경을 이루었다. 한국의 기후와 풍토를 고려하여 적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온수난방방식을 최초로 사용하였고, 중북도를 이용한 겹집화로 컴팩트한 내부공간 구성과 외부벽면을 최소화하여 열손실을 줄이는 방한건축으로 계획되었다. 목구조를 탈피한 콘크리트 보강블록 구조와 아스팔트 방수, 유리 등의 근대적 재료를 사용하였고 내부공간 구성에 있어서도 아동과 주부를 고려한 가족중심의 공간구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조선은행사택은 한국에 지어진 일식주택의 유형 중에서 민간의 '田'자형 평면형의 일본재래 전통 주거형태나 다른 관사·사택의 유형과는 구별되는 진보적인 특징이 보여지며 이것은 당시 한국 주거건축의 동향에 있어서 조선의 풍토를 고려한 근대화된 새로운 주택의 선례로서

그 의의를 갖는다. 조선은행사택의 원형과 생활실태조사를 통한 현황의 비교를 통해서도 건립당시 일본인을 대상으로 지어진 공간의 틀이 해방 후 한국인의 거주와 근대화 과정에 따라 변화하여 새로운 틀로 재편성되는 과정을 볼 수 있었으며 변화의 양상은 증·개축을 통한 적극적인 변화와 용도의 변화나 주거공간에서의 적응에 의한 지속 등의 소극적 변화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과 일본의 주문화의 차이와 설비와 재료의 발달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 거주자 구성의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공간의 변화가 나타났고 합리적 요소로서 받아들여진 응접실과 현관은 지속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조선은행사택을 통해본 주거건축의 근대화 과정은 건축양식의 유입에 따른 일방적인 이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주의식과 주문화의 차이와 존속을 위한 적응으로 변용과 동화의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조선은행사택의 원형과 현재의 모습, 그리고 그 변화 과정을 통해 볼 수 있었다.

주

- 1) 1922년 조선건축회의 기간지로 발간되기 시작하여 1944년까지 발행된 일제시대 유일한 건축전문잡지로 당시의 한반도 건축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 2) 조선총독부 발행
- 3) (표-2)의 평면과 내용의 출처 : 鈴木成文(1999). 현대일본주거론. 건축자료연구소 p 74-75, 김주목(1991). 신건축학대계 7권. 주거론. 대광서림
- 4) 朝鮮と建築 제6권 5호 (1927) 26쪽
- 5) 朝鮮と建築 제1권 6호 (1922) 27-31쪽
- 6) 거간(居間) : 이마. 일식주택에서의 거실.
- 7) 원형의 필지 경계와 배치의 유추는 1921년 경성지도(조선총독부 발행)와 66년 최초 항측도(국립지리원)를 토대로 하여 사택 필지의 경계를 잡고 구 토지대장(용산구청)으로 조선은행사택의 필지 경계를 최종 확인하였다.

사택의 유형별 배치는 이러한 문헌자료에 현재 남아있는 사택과 사택의 거주자 면담 등을 종합하여 유추하였다.

- 8) 朝鮮と建築 1927년 6권 5호 - “사택 거주자들의 목소리”에서 조선은행사택 거주자들의 글
- 9) 朝鮮と建築 제1권 6호 (1922) 27-31쪽
- 10) 당시 주거건축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유일한 건축잡지였던 조선건축회의 기간지 朝鮮と建築 과 신문자료 (동아일보 1920년 창간 -), 기타 잡지 (개벽, 조광, 신동아)를 통해 주택개량론과 한인 건축가들의 새로운 주택의 제안을 파악할 수 있으며 조선은행사택에 나타난 특징요소들과 유사한 성향이 보여진다.

참고문헌

1. 김선재(1987). 한국 근대도시 주택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김성중 (1989). 한국인 건축가에 의한 근대 주택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김정아 (1991). 일제시대 주택개량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안성호 (1997), 일제강점기 속복도형 일식 주거에 이식과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 이현희 (1993). 한국에 있는 일식주거의 변천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朝鮮と建築 (조선건축회). 1권1호-23권12호.
7. 현대일본주거론. 鈴木成文(1999). 건축자료연구소.
8. 경성지도 (조선총독부 발행).
9. 동아일보. 1921년 6월 12일. 사택건설의 장려.
1923년 1월 29일. 연구할 온돌장치.
1923년 1월 26일. 사택의 호수.
1930년 9월 27일 - 10월 4일 연재.
유일한 휴양처 안락한 홈은 어디.
1931년 3월 14일 - 4월 3일 연재.
우리주택에 대하여.
10. 개벽. 1923년 2월 3일. 문화생활과 주택.
11. 조광. 1935년 11. 주택건축의 동향.

(接受 : 1999. 11. 10)